

승가, 깨달음을 위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6. 승가에 귀의하며 받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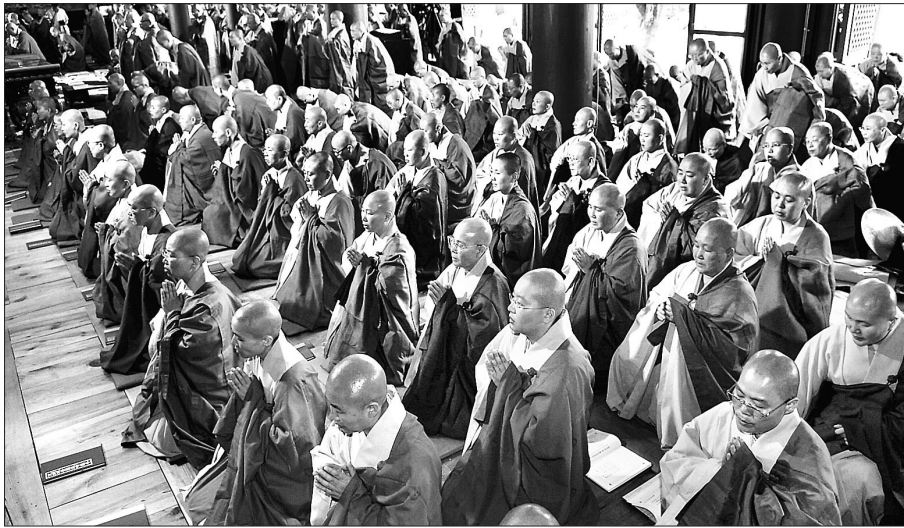
소위 삼보(붓다와 교법과 승가) 가운데서, 승가만큼 오래 안에 있는 것은 없다. 그 오해는 제거(除去)돼야 할 것이고 열은 관심은 깊은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음을, 가끔 아함부(阿含部)의 경전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관심 깊게 논의(論議)된 적이 없다. 그 이유도 또한 승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슈라바사스티(사위성) 교회의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처님은 비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침에 따라서 이 길을 똑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共同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도 또한 안심하면서 몸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은 “승가에 귀의하며 받들다”라고 그 믿음을 표명한다.

이 세 번째의 의지처를 지적하면서 붓다는 지금 그대들이 이 공동체의 좋은 동지(同志)인 동안은 이 길을 방황하는 일이 없이 마침내 능히 그 목적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법하는 것이다.



서울 조계사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포살법회. 부처님도 제새시 참석했던 자자와 포살은 승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자자(自恣)의 모임의 정경(情景)을 기록한 경전은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석존이 슈라바사스티의 녹모강당(鹿母講堂)에 있었던 때의 일이다. 하안거(夏安居)도 무사히 끝나고 자자(自恣)를 행하려고 비구들은 모두 들만에 있으면서 등글게 진(陣)을 치면서 땅 위에 앉아 있었다. 붓다도 또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자자(自恣)라는 것은,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7월 14일 혹은 15일의 밤에 이루어지는 의식(儀式)을 말한다. 다른 비구로 하여금 생각나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자자라고 한다.

먼저 한 비구가 회중(會衆)을 향해서 말한다.

“승가여, 네 말을 들으시오. 오늘은 자자입니다. 만일 승가로서 때가 적당하면 승가는 자자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된다. 먼저 장로(長老)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합장한 손을 높이 들면서 법을 이어받은 도반(道伴)을 향해서 소원한다. 이날까지 3개월간 우기(雨季)를 피하면서 비구들은 모두 함께 생활하였다. 그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된 죄과(罪過)를 범한 것이 아닐까.

원컨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라다며, 같은 좌석에 앉은 여러 비구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밤의 자자에서 으뜸가는 장로(長老)는 부처님이었다. 그는 맨 먼저 높이 합장의 손을 올리면서 비구들을 향해서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자진해서 그대들에게 묻노라, 내 행위나 또는 말에 있어서 비난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았던가.”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침묵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 스승의 언행에 비난할 만한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때 사랄리푸트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붓다를 경배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세존의 언행에 아무 비난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은 이때까지 없었던 길을 있게 하였으며, 이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길을 알게 하였으며, 이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길을 설명하였으며, 길의 지자(知者), 길의 교자(巧者), 길의 도사(導師)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자의 식(式)에서는 격외(格外)의 일이지만, 이날 그는 감명(感銘)받은 바가 있어 이러한 찬사를 스승 앞에 드린 것이다.

다음은 사랄리푸트라가 차례였다. 그도 또한 형식에 따라서 비구들에게 합장하며 자자의 말을 표시하였다. 거기에도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때 석존이 일어서서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사랄리푸트라여, 우리들은 그대의 언행에 조금도 비판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랄리푸트라여, 그대는 현자(賢者)이다. 큰 지자(知者)이다. 예컨대 전륜성왕(聖王)의 큰 아들이 부왕(父王)의 차륜(車輪)을 굴리듯이, 그렇게 그대는 내가 굴리는 법륜(法輪)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굴리리라.”

이렇게 하여, 좌석에 앉은 비구들이 차례로 자자를 행하였으나 그날은 누구도 비난의 말을 들은 자는 없었다. 그리고 무언지 감격이 넘치는 듯한 분위기가 만좌(滿座)에 가득하였다.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부처님도 역시 비구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스승도 또한 승가의 한사람으로서 맨 먼저 “만일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원컨대 나를 위해서 지적해 달라”라고 좌중의 비구들 앞에서 합장하며 자자를 행한 사실이다. 여기에 불교 승가의 본래구조와 그 정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침 해 뜨는 모양을 알리다. 해가 뜰 때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진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해가 뜨는 전조(前兆)이며 선구(先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을 일으킬 때는 그 전조가 있으며 선구가 있다. 그것은 착한 빛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착한 빛을 가진 비구에게 있어서는, 그가 성스러운 팔지의 길을 수습(修習)하며 성취한다는 것은 가치기약(期約)할 수 있으리라.”

이 길에 있어서는 신의 은총(恩寵)에 대한 기대같은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기도의 힘에 매어달리는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의지할 것은 다만 자기뿐이라고 쓰여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길을 가는 자는 무호(無懼), 무의(無依), 무원(無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 아난다(阿難)가 마가다의 대신(大臣)에게 말하였듯이 그들은 반드시 의지할 바도 도우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승가의 기본적 구조

승(僧)이란 승가를 생각한 말이다. 승가란 산스크리트어 상가(samgha)의 음(音)을 옮긴 말이다. 그 원래의 뜻은 ‘밀접한 결합(結合)’을 뜻하는 말이며, 그 당시에는 중의(衆議)에 따라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정체(政體)가 이 말로써 불리우고 있었다. 붓다는 그 말을 취하여 그들의 교단(教團)을 승가(僧家) 또는 비구승가(比丘僧伽)라고 이름 지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구성원의 각자가 모두 평온함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오래된 한역(漢譯)의 용어는, 이 승가의 의역(意譯)하여 화합중(和合衆)이라고 말한다. 이 번역도 또한 이 공동체의 성격의 일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등한 결합에 있어서는 계급도 없으며 통솔의 조직도 없으며 다만 서로 서로 착한 벗으로서 길을 같이 하는 동행자(同行者)로서 각자 격려하고 화합하면서 수행에 전심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승가에서 부처님의 지위

그 속에 있어서는 부처님 또한 다만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 물론 이 길은 이 사람에게 의해서 증오(證悟)되었으며, 이 사람에게 의해서 교시(敎示)된 것이다. 이 사람이 와서 이 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법을 알며 이 길에 전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길의 근본인 존재의 법칙은 구원영겁(久遠永劫)하게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새로 만들어서 영위(營爲)한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다만 그 법을 깨닫고 교시하면서 스스로 이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들도 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존도 또한 이 길을 가는 사람 중의 하나이며, 그 한사람의 교시를 받으며, 그 한 사람의 인도(引導)에 따라서 각자(各自)도 또한 이 길을 가는 것뿐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합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승려 부역은 온당한 행위인가

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양(羊)의 방방에 호랑이가 가죽을 뒤집어 쓴 자가 열에 보통 여덟 아홉은 된다. 나라에도 강아지뿔 같은 썩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간택하고 제거하여 백성의 부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피차(彼此)에 다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답 앓거나, 청컨대 그대를 위해 풀이 하겠다. 기우제(祈雨祭)를 받드는 자가 물고기와 자라를 차마 요리하지 않음은 물고기와 자라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선영(先營)의 분묘(墳墓)를 섬기는 자가 풀과 나무를 차마 베어버리지 않음은 풀과 나무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신(神)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성으로 기도 드리는 사이와 슬피 사모하는 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어찌지 않은 바가 없다.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까닭을 알고 받았었다면 비록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자라, 풀,

예로부터 성현이 인간에 나타내 보이 되 가난하고 병들고 추후하여 애석한 형체로 한 자가 많음은 진실로 까닭이 있으니,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끌어 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심게하며, 또 이법은 모습으로 취해서 안됨을 깨우치시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공간선사(豐干禪師)는 말하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알아도 보지 못한 다” 하였으며, 한산(寒山)은 말하기를 “부처님을 간택하고 좋은 향을 사루며, 승려를 간택해 귀하고 공양한다면 그대에게는 평등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성이 모두 감입하지 않을 것이” 하였으니, 그 외에서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것이 부처님을 간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진로(塵勞)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공경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 복을 바라고자 한 자는 더욱 공경하지 않으며 안되는데 도리어 체적질하고 부역을 시킨다면 어찌 그것을 이치라 하겠는가.

슬프다 군성이 여기에 빠지지 오래되면 비록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자라, 풀,

수행은 나라를 위한 福田과 같아 스님들 부역 내보는 것은 ‘혜불’

나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어찌 그를 욕되게 백성의 예(例)로 편입하여 부역을 시키겠는가.

또한 땅은 밟는 물건이며, 나무는 불을 피우는 물건이지만 그것을 조소(雕塑)함에 미쳐서는 부처님의 형상이 되어 기도하면 감응(感應)이 있고, 공경하면 복이 생(生)한다. 이미 인품에 참여한 할로 믿음이 흥과 나무로 더불어 비교할게 아남을 어찌 알겠는가. 비록 그 자리만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떨나무감이나 밟는 흙으로 여겨 그 복을 덮고 그 허물을 부르는가.

더구나 부처님은 군령(群靈)의 대본(大本)이니, 근본이 흔들린다면 지말이 따라서 동여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승니(僧尼)를 몰아 부역시킴을 경상(經像)을 태우고 탐과 절을 파괴한 죄와 같이 여겨 국가의 재앙으로 삼으셨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천하를 소유한 자는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승려가 세간에 처함은 다만 스스로 그 도를 닦아서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할 뿐 아니라, 오로지 그 법으로써 임금과 신하의 바탕이 되고 국가를 도와 널리 인간·천상의 복전(福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서 시작하여 싫어하거나 만족할 기약이 없다. 음식상을 사방 열자로 차리는 사치와 좌우에 시종하는 첩의 많음과 만종(萬鐘)의 영화와 천사(塵勞)의 부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에 오히려 다하지 못했다 여김은 세간의 자태이다. 승려는 이와 반대로 정혹(精惑)의 밖에 높이 뛰어넘어, 그 전일(全一)함은 진금(眞金)이 금광에서 나옴과 같으며 그 진로를 여임은 옥강(玉鑑)이 구름을 여림과 같이 삼매를 닦고 보리를 바랄 수 있다. 승려가 이와 같은데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백물을 축적함은 남자가 추위를 막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고, 결실하며 몸을 지탱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가사를 입는 것은 세간의 복전이 됨을 보임이고, 발우를 지니는 것은 세간의 응공(應供)이 됨을 보임이다.

그 수염과 머리털을 제거함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밖으로는 그 형체를 험고 용모수식함을 일삼지 않음이고, 안으로는 마음의 집조를 깎아버려 거칠거나 더럽게 되지 않게 함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통) 8cm]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기iban

불교인 상장과 만년, 영정만 내입과 만년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iban

수련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반자 기iban

www.hyunbulshop.com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학비가 20만원 입니다.)
- ▶ 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內) "중앙불교대학" 3층 강요실)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① 아침예불 / 중성 ② 시물다루는 법 (묵탁, 요령, 복, 태징) ③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④ 천수바라 나비춤 (도량계 / 다계)

☆ 교육특강 ☆

- ▷ 오후 2시 ~ 3시 범고무 - 문곡스님
- ▷ 오후 3시 ~ 4시 명리 - 해각스님
- ▷ 오후 4시 ~ 5시 태령소(호적) - 시우스님

●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www.송강사.kr/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크절할때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